

보도시점: 2026. 7. 7.(화) 즉시 보도

배포: 2026. 7. 7.(화)

현대자동차그룹 등 기업 지원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·실시계획 변경

- 인공지능(AI)·로봇·수소클러스터와 친환경 에너지 중심지 도약 가속 -

- 새만금개발청(청장 문성요)은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를 지원하고, 친환경 에너지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‘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(25차) 및 실시계획(29차) 변경안’을 승인·고시(7월 6일)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계획 변경은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.
- 주요 변경 내용은,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에 맞춰 첨단전략 산업 분야 소재·부품·장비 협력업체를 지원할 ‘기업성장센터’ 건축 기반이 마련된다.
- 이를 위해 5공구 내 지원시설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함으로써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인공지능(AI)·로봇·수소클러스터 관련 협력업체들의 입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아울러 해당 부지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‘탄소포집(CCU) 기술 고도화 실증센터’가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, 이산화탄소와 그린수소를 활용한 e-Fuel(합성원유) 생산 공정 실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.

- 이와 함께 새만금의 핵심 에너지 사업인 ‘수상태양광 발전사업(지역 주도형 0.3GW)’의 전력 계통 연계를 가속하기 위해 8공구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해 송전소 부지로 확정했다.
- 이를 통해 한국전력 남비응변전소와 전력망 연계 여건이 갖춰짐에 따라, 2028년으로 예정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상업운전 개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
- 또한, 현대자동차그룹의 인공지능(AI) 데이터센터 운영을 지원할 글로벌 정보통신 연계망 구축을 위한 육양국 사업부지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도 포함됐다.
- 대규모 국제 해저케이블 구축 사업인 ‘AUG(Asia United Gateway East) 프로젝트’의 한국 육양국(국제 해저케이블과 육상 통신망을 연결하는 시설)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, 2공구 내 산업 시설용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에 ‘방송통신시설’을 추가했다.
- 남영우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“이번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은 기업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기반을 반영한 것”이라면서, “새만금이 친환경 에너지와 글로벌 통신망, 첨단 전략산업이 융합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	책임자	과 장	홍지광	(063-733-12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승석	(063-733-1266)
			주무관	김태완	(063-733-1267)